



남부 전역에 걸쳐 '살아남기(의원석 유지)'에 투표한 보수쪽 의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정치적 경계선을 희석시켰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경제 정책이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탈당에 대한 움직임은 지난 10년간 어느 때보다도 쉬워야 한다. 게다가, 진보 진영에 재직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직 보수당 의원이 현 보수 진영으로부터 등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야당으로 옮기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탈당에 대한 논란은 비단 최근의 가십거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집권당의 잠재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만약 총리가 살아남고 싶으면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의원들을 자기편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직위에 대해 걱정하거나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이 진보 진영이 나라를 더 잘 운영할 것이라고 느낀다면, 탈당은 점점 더 매력적인 아이디어로 보일 것이다.

번역: 배승주

출처: <https://capx.co/forget-red-wall-rats-its-defections-in-the-shires-tories-should-worry-about/>